

# 순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고민을 해결해 드려요”

### 전남테크노파크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올 3억5천만원 예산 13개 中 9개 지원...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75개 보급

순천시는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관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시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의 한 과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최소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공장 도입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제조혁신, 산단혁신, 일터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3개의 중소기업

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75개를 보급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더 넉넉한 경제도시 실현'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천시는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에 기업수준을 진단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공장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



전진단과 추진전략 수립,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미래산업과

(061-749-301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 지원

주택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 개량비 최대 610만 원



보성군은 2021년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21년 보성군은 420동 노후주택 슬레이트 절거 방안을 세웠으며,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50㎡) 이하 건물은

174만 원, 51㎡ 초과 200㎡ 이하 건물은 68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처리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로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월 4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일정에 따라 절거공사를 시행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노후 슬레이트 절거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고흥군, 임산부 행복요가교실 운영

내일부터 프로그램 시작...주2회씩 총 10회 예정

고흥군은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모성의 건강관리능력을 키우는 '임산부 행복요가교실'을 운영한다. 3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요가 프로그램은 태아와 친밀감을 높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 2회

(화,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태아의 두뇌발달을 돕는 요가, 자궁의 위치를 바로잡고 임산부 통증을 줄이는 요가, 진통시 분만자세, 산산호흡법 등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

는다. 따라서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영양관리, 아토피 전식 예방교육을 실시, 체계적 건강교육으로 올바른 산전·산후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임신·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

생활환경·교통·기타 총 3가지 분야 누구나 참여 가능

광양시는 11월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과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리빙랩'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환경 ▲교통 ▲기타(경제, 안전, 복지) 총 3가지 분야로, 주제와 관련 있는 아이디어면 개인이나 단체,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중

아이디어 심의를 통해 8개를 최종 선정해 2021년 1월 중 시상식(상금: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20만 원)을 가질 예정이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맑은 숨, 편한 숨 금호타운 조성'을 위한 2021년도 구축사업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광양시 실무협의체, 전문가 자문단, 시민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는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리빙랩으로 진행해보고, 운영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또는 광양시 스마트타운챌린지 온라인 플랫폼(www.gysmartlab.org)에 게시된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cho@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여수선언실천위, 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에 관한 토론회

“지역적·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 강조



여수시는 최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이하 여실위)주최로 '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송대수 박람

회재단 이사장, 여수광양항공사 부사장, 해수부·전라남도 관계자, 여실위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창호 전남대학교 교수의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제안 및 개발방식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상훈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좌장으로 패널 4명과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상훈 좌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개발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지역적·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